



신년 대표이사 간담회

2026.01

Disclaimer

본 자료는 HD건설기계(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본 자료에 포함된 경영실적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로서, 추후 그 내용 중 일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본 자료에 서술된 경영실적의 정확성과 완벽성에 대해 보장하지 않으며, 자료작성일 현재의 사실을 기술한 내용에 대해 향후 갱신 관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정보는 이미 알려진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시장 상황, 기타 불명확한 사정 또는 당초 예상하였던 사정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당사 및 당사의 임직원들은 이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 여러분에게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과실 및 기타의 경우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자료는 비영리 목적으로 내용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단, 출처표시 필수),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이 변경된 자료의 무단 배포 및 복제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I. HD건설기계 성장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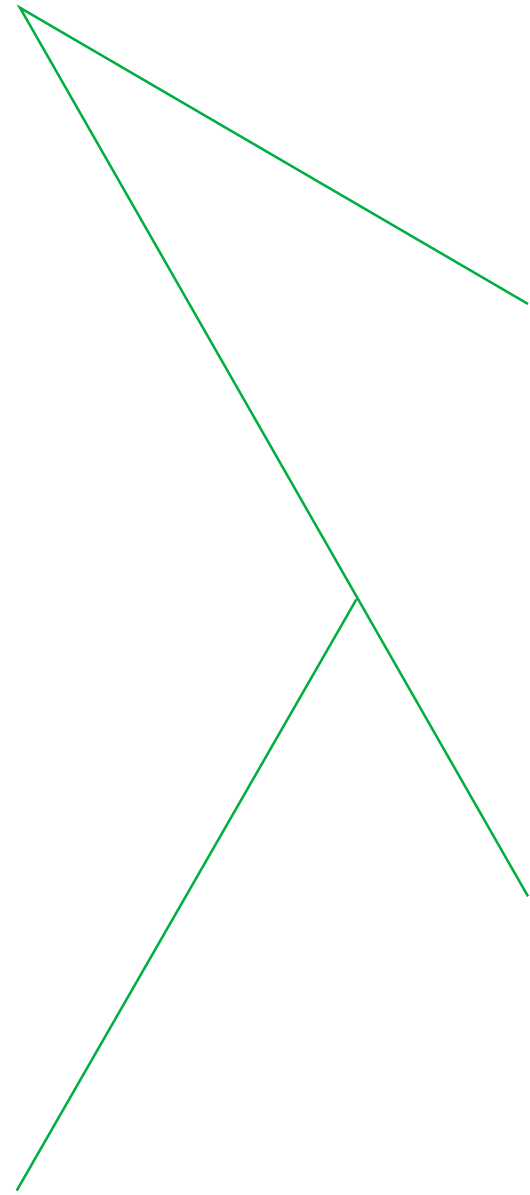
1. Overview
2. 중장기 성장전략 – 시장 특화 / AM사업 강화 / 시너지 창출

II. 엔진사업 성장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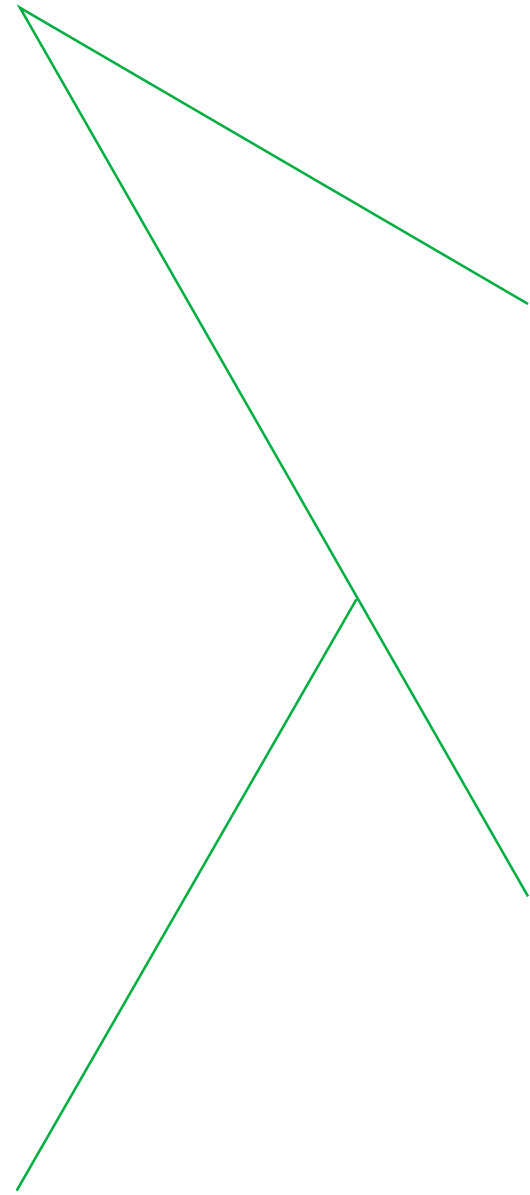
1. Overview
2. 엔진 중장기 시장 전망
3. 엔진사업 성장 전략

III. 2026년 사업계획

1. 2026년 건설기계시장 전망
2. 2026년 사업계획



I. HD건설기계 성장 전략



“Be the One, Be the No.1”



HYUNDAI



DEVELON

글로벌 17개 판매법인
6개 생산법인

140여개국
750개 이상의 딜러 네트워크

Full - Lineup

매출 8.7조원
대한민국 기계산업 대표기업

Top-line 성장과 동시에 수익성 확보

2030년 매출 14.1조원, 영업이익률 11% 이상



건설기계: 시장 특화 성장 전략 추진 – 권역별 영업 시너지



엔진: 발전/방산/산업용 각 부문별 성장 기회 catch, 북미 발전산업 진출



AM/PS 사업 대폭 강화



2단계 시너지를 통한 수익성 확대

시장별 차별화된 사업 전략 추진

수익성 제고

- 전략시장 수익성 상향 평준화
- 중국 고수익 해외시공 판매 확대, 중형 휠 굴착기 판매 확대
- 신흥 Mining 시장 공략

MEA 거점 확대

- 두바이 지역본부 설립 - 아프리카/중동 매출 확대
- 울산/인천/군산공장 교차생산으로 공급량 증대

인도사업 강화

- 서비스 역량 강화 - 충성고객 확보 및 시장 2위 수성
- 급성장하는 컴팩시장 공략
- 수출지역 다변화에 대응한 공급역량 강화 - 年 1만대 생산, 수출 확대(1,000대 → 3,000대)

지역별 특화모델

- 한국 고급화 소비자 겨냥 차세대 신모델 출시
- 유럽 출시 반응 긍정적인 차세대 신모델 북미 출시
- 중국/인도 경제형 모델 개발

컴팩트 핵심 사업화



- 2026 CWL 통합
- 2028 3.5~5.5 T 단일모델 통합
- 2029 8T 단일모델통합, 10T 신규라인업

중형 중복지업 효율화, 경제형 출시



- 2026 21T 초경제형
- 2027 20-36T 경제형, 14T 경제형
- 2028 38T 통합
- 2029 48/52T 통합

초대형 사업 확대



- 2027 130/150T 초대형
- 2028 WLO 700급 신규라인업
- 2030 WDT/RDT 마이닝트럭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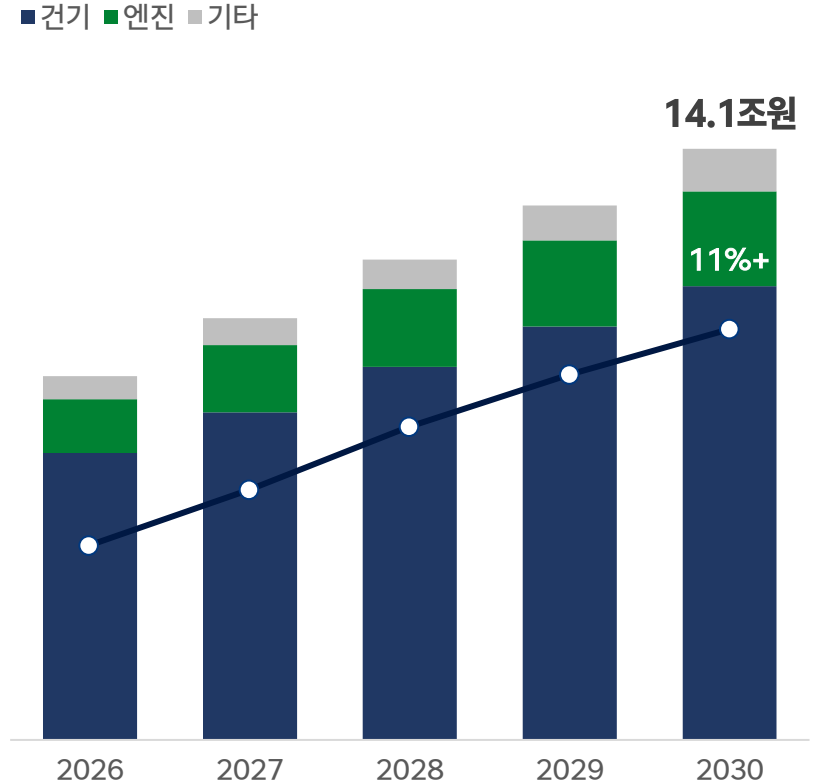
건설기계 AM매출 2025년 0.7조 → 2030년 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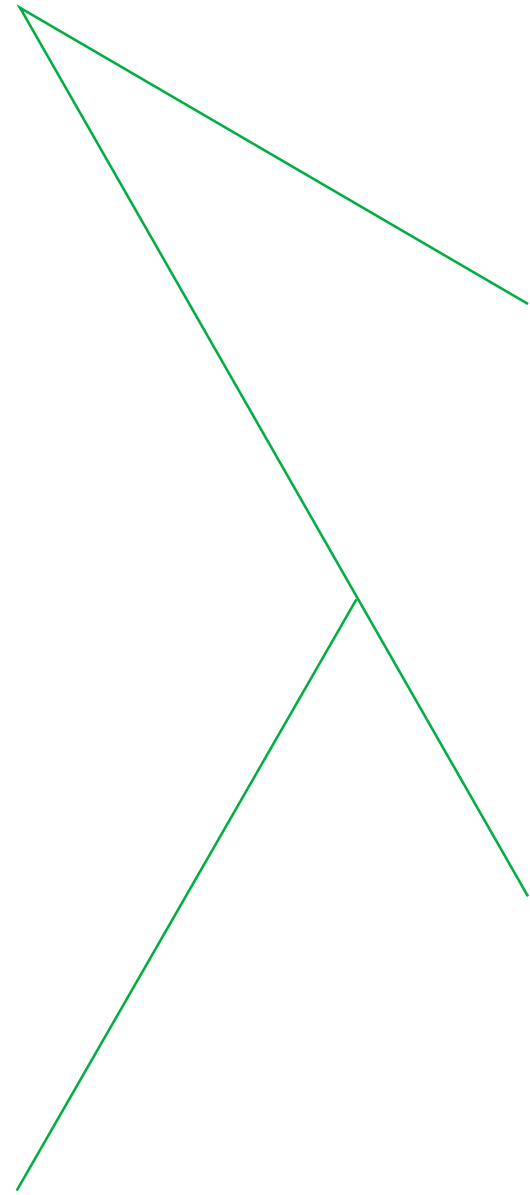
*업타임 센터 : 디지털 기반 원격 장비 모니터링·지원 센터

매출 성장을 통한 수익성 확대 + 오퍼레이션 시너지 본격화

<p>선진, 신흥시장 M/S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시장 차세대 신모델, 컴팩 확대 • 신흥시장 초경제형 모델 출시 	<p>AM 사업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프로그램 개편 • 경제형 부품 개발 • AM 전용 딜러십 발굴
<p>원가혁신을 통한 수익성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생산 모델 경쟁력 개선 • 중국/브라질/인도공장 유연생산 확대 • IT 시스템 통합 	<p>품질비용 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신모델 품질 상황실 운영 • 선행/예방 품질활동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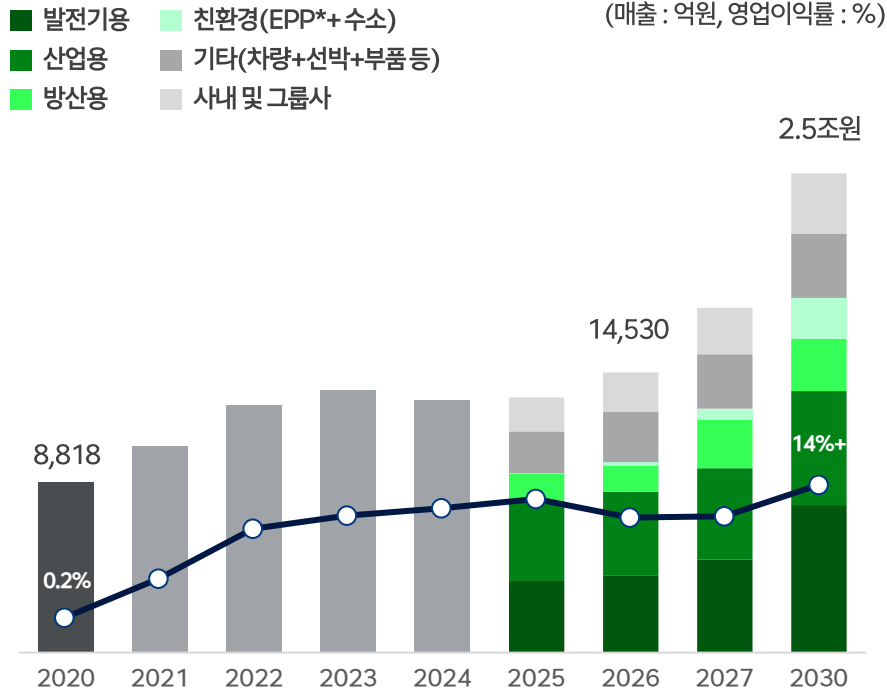
II. 엔진사업 성장 전략



II-1.엔진 Ov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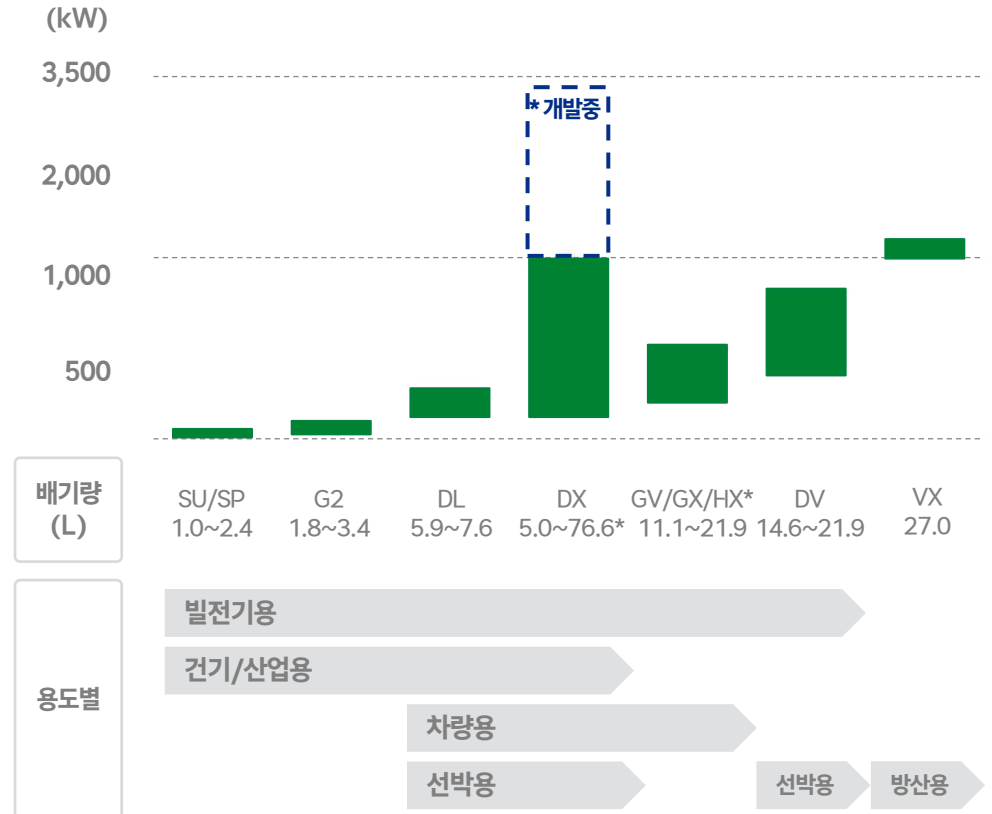
매출 추이 및 전망

: 2020년 BEP → 매출 성장에 따른 가파른 이익률 개선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 따른 추가 매출 성장 기대



*EPP: E-Power P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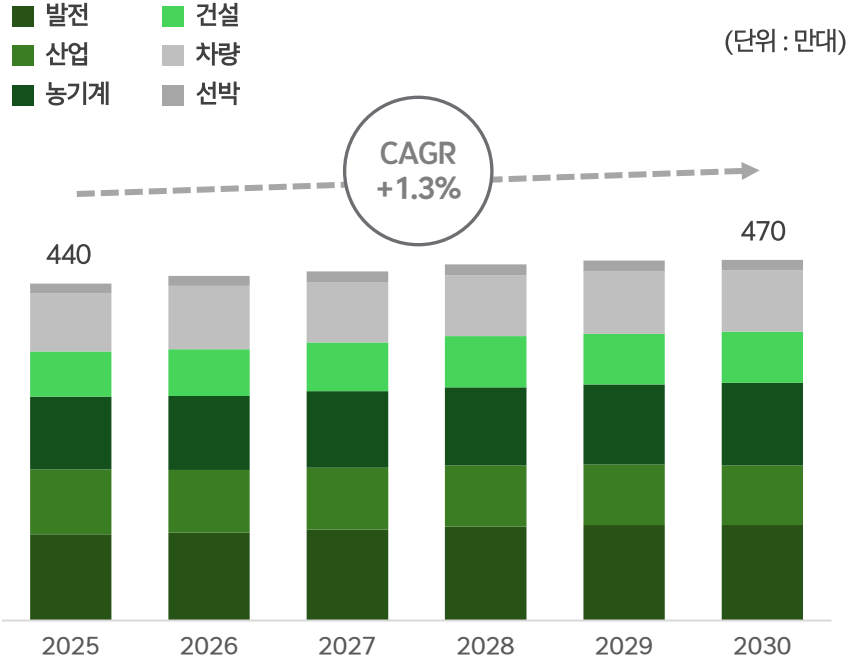
엔진 라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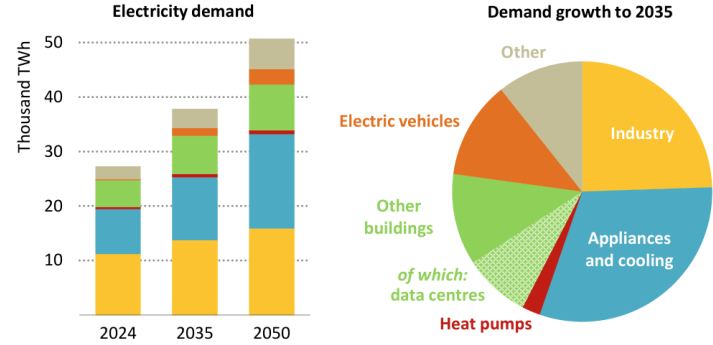
II-2. 엔진 중장기 시장 전망

내연기관 엔진 시장 전망

: 꾸준한 수요가 전망되며 경쟁사의 신규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 시장 기회 확보 가능



전력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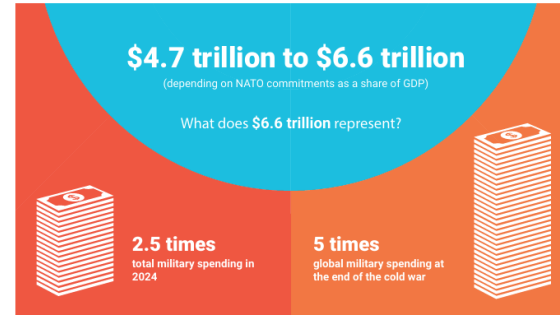


IEA. CC BY 4.0.

Electricity demand increases by almost 1 000 TWh each year, mostly driven by appliances, cooling and industry

국방비 지출 전망

Figure 5: Projected world military expenditure by 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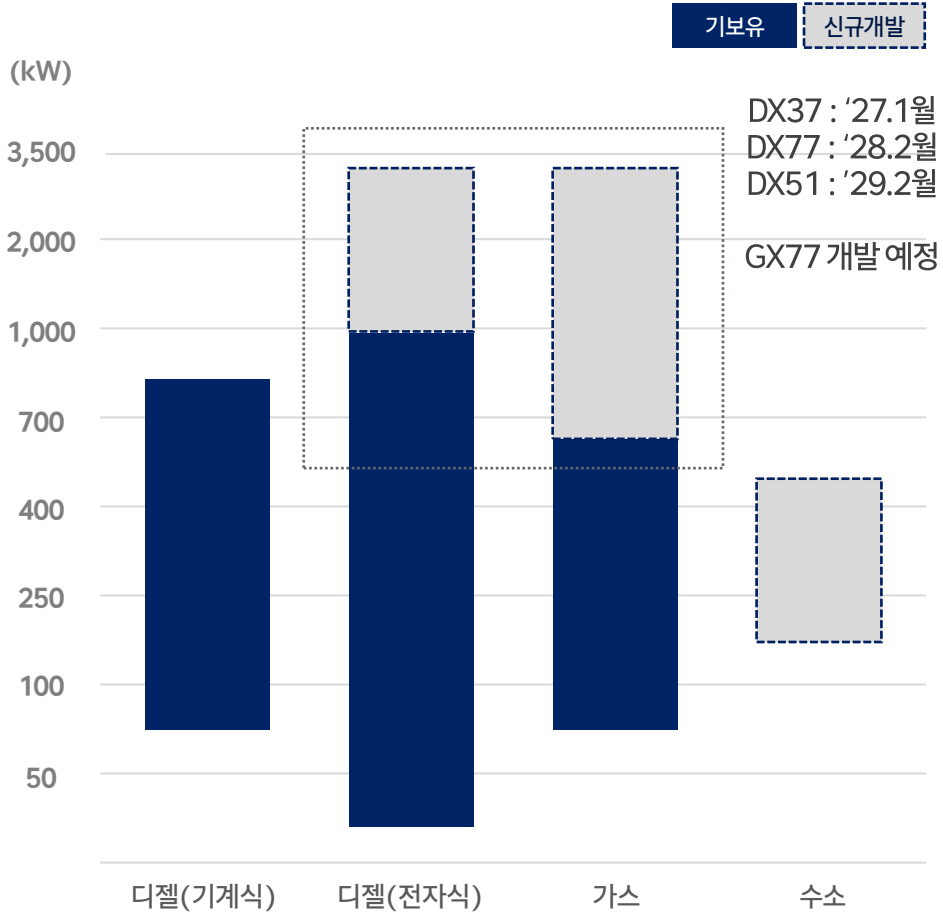
* 시장 Data : PSR Data, Off-highway 등 리서치 기반 사내 추정치

* 전력 수요 전망 : IEA, World Energy Outlook 2025 (2025.12)

* 방산 지출 전망 : UN, The Security We Need: Rebalancing Military Spending for a Sustainable and Peaceful Future (2025.09)

II-3. 엔진 성장 전략 : 제품 라인업 확장 + 군산 신공장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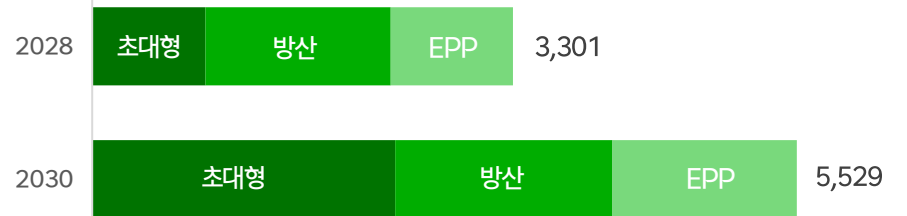
초대형 발전엔진 시장을 위한 제품 개발



군산공장 SOP 및 매출 전망



군산공장 매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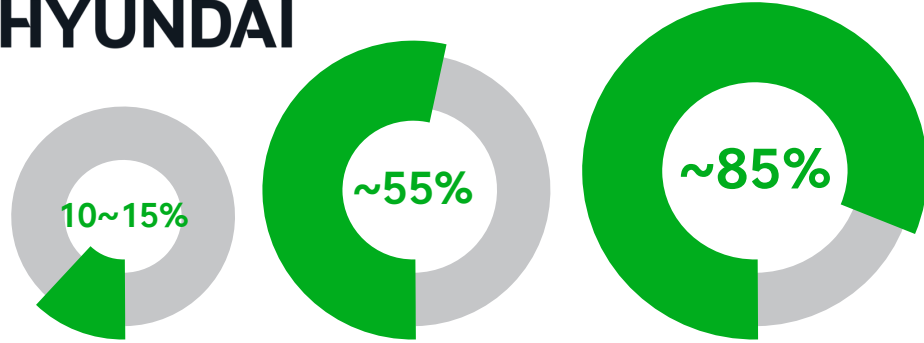


II-3. 엔진 성장 전략 : 자가화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 + 친환경 수소엔진과 EPP 매출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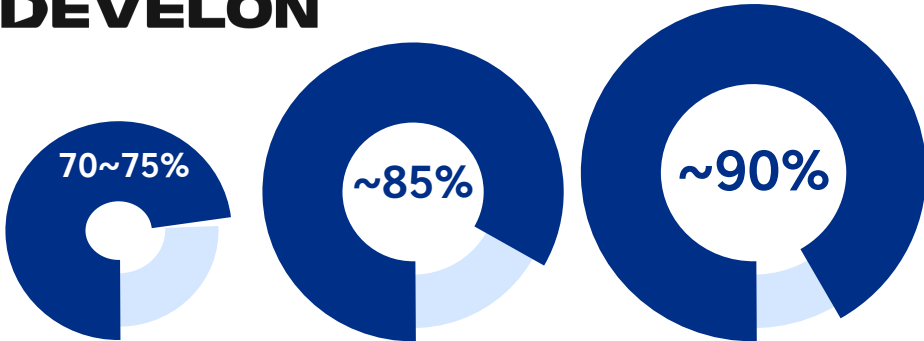
건기 엔진 자가화 목표

:산업용 DX12('26.10월), DX22('26.12월) 개발
→ 자가화 포트폴리오 확대

HYUNDAI



DEVE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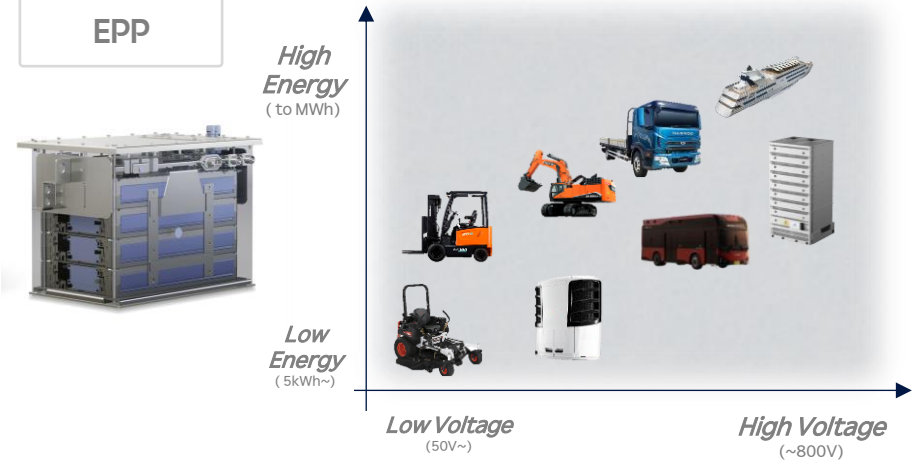


친환경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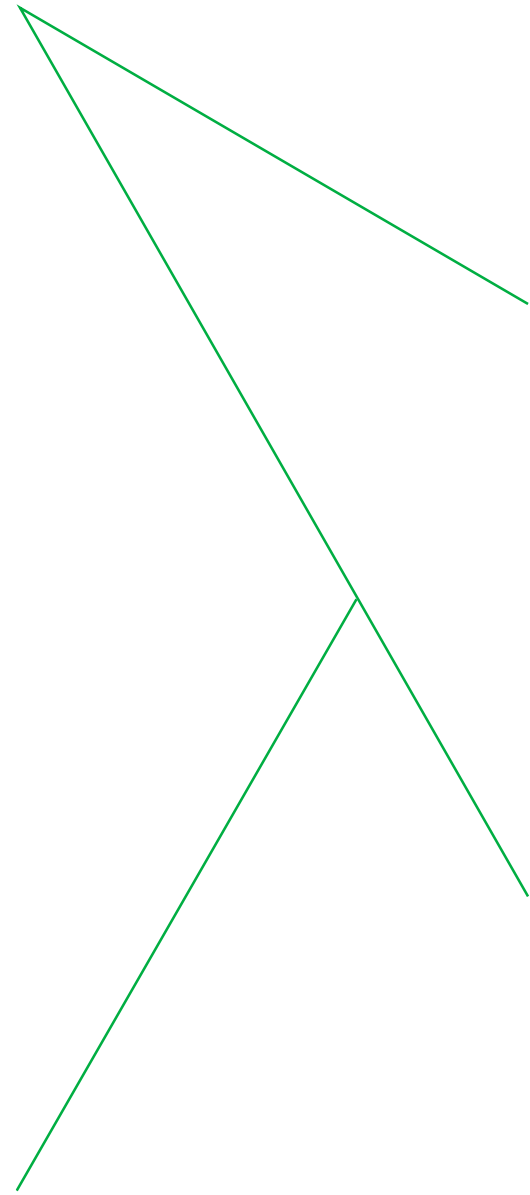
수소 엔진



EPP



III. 2026년 사업계획



신흥 호조 지속, 유럽 회복 본격화

신흥



정부 및 민간 부문 대형 프로젝트 + 금광 호조 등 광물 부국 중심의 채굴 수요 지속
물류 및 인프라 투자 증가로 중대형 장비 중심 시장 성장 전망

인도



GDP 성장률 6% 이상의 긍정적 경제전망
신규 주택공급 등 인프라 투자 지속

유럽



지속적 금리인하와 주요국 건설경기 회복으로 성장
EU기금 및 국가별 정책자금 활용한 투자 확대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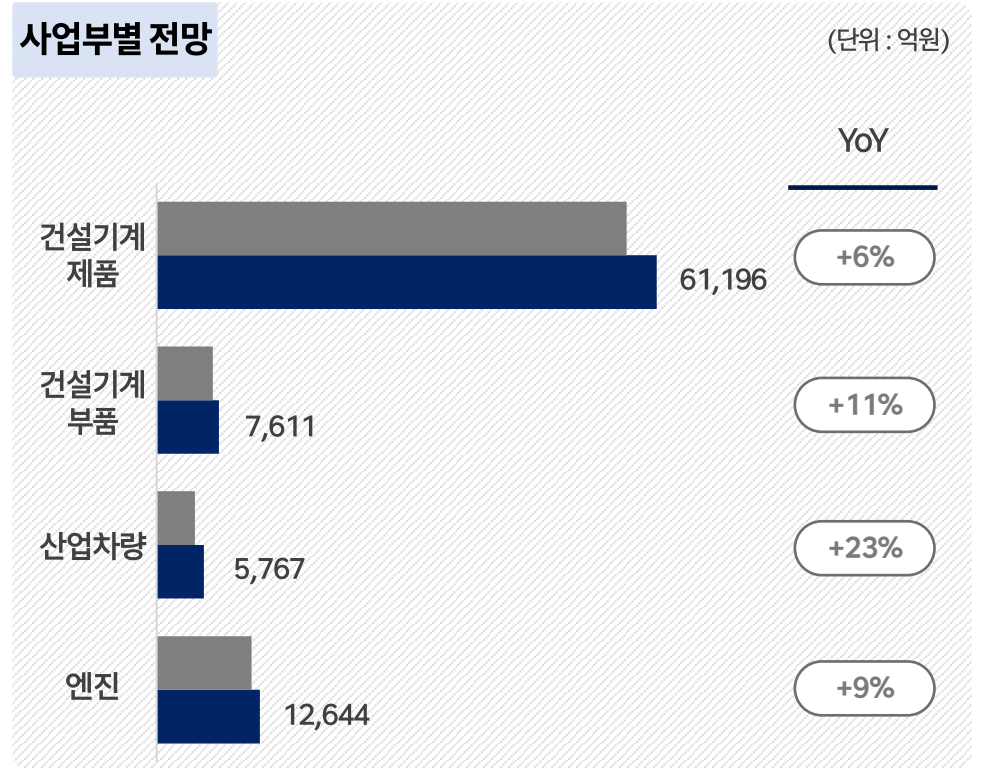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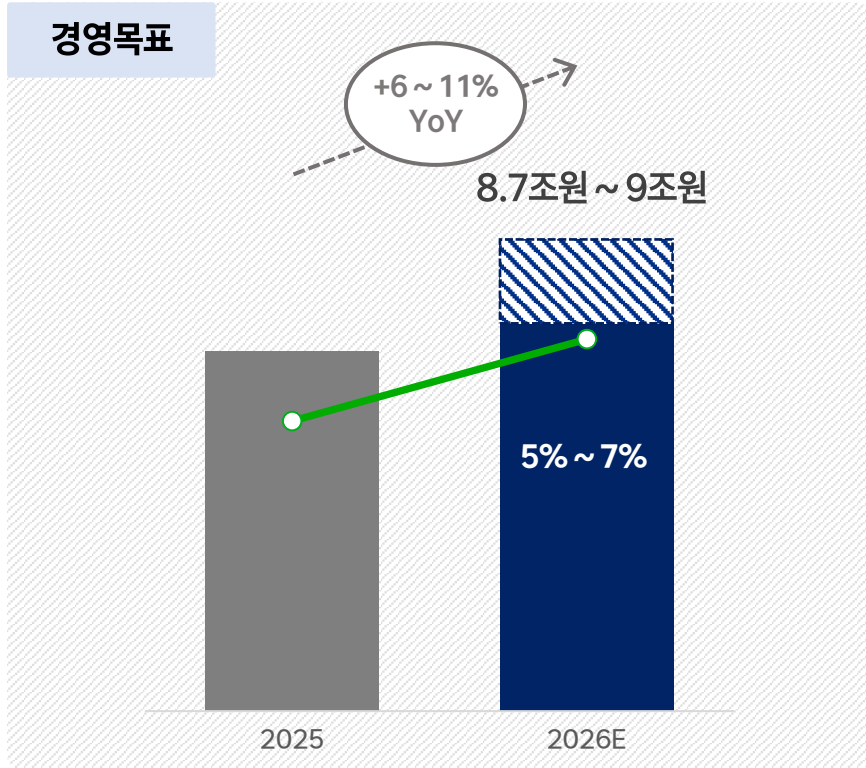
서부지역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 활성화

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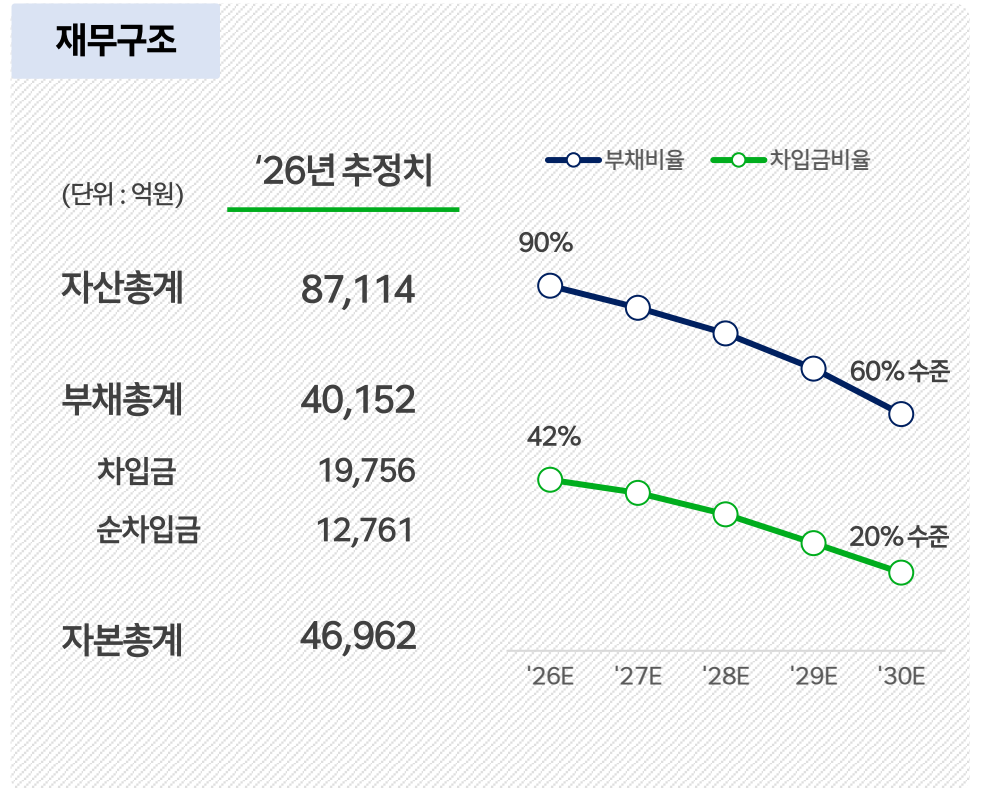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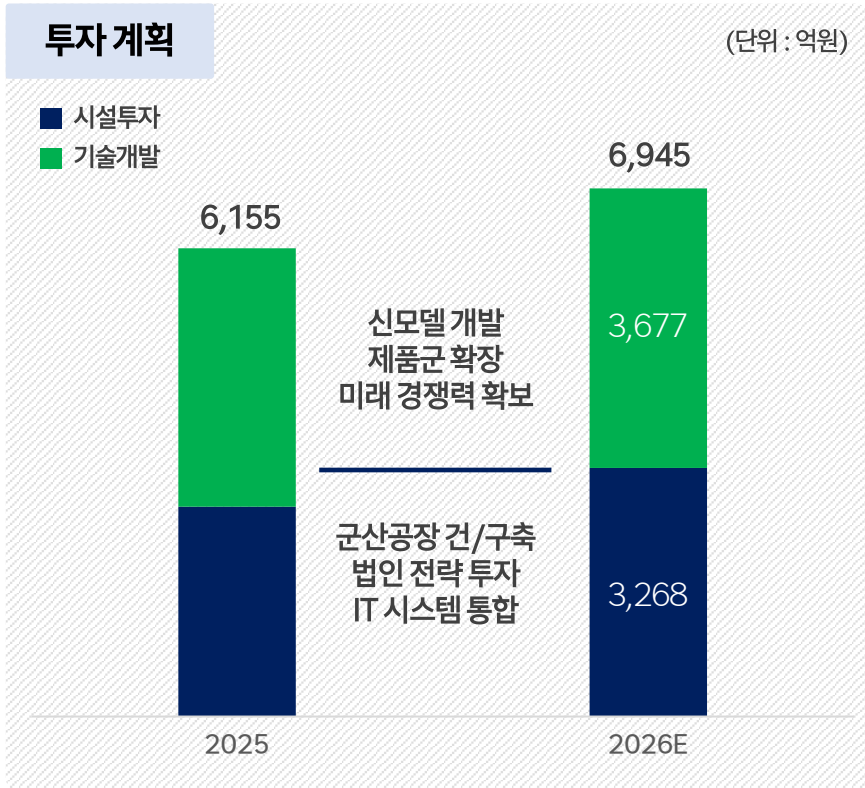


관세 영향으로 상반기 조정세 예상되나 하반기 성장 전환 기대

건설기계 사업의 근원적 경쟁력 확보하여 추가 성장기반 마련 핵심 전략과제의 빠른 실행과 시너지 창출을 통해 시장 성장을 상회하는 실적 달성



기술·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 +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노력 지속
재무 건전성 유지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 추구



Q&A

